예술의 미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무재해 현장 이룩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기세였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푸르른 하늘과 바람에 한들거리는 코스모스 길은 가을의 길목을 알려준다.

사색의 계절 가을하면 예술 단어를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다. 이러한 가을과 어우러져 무재해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 찾아갔다.

경북 구미시의 관문인 "경부선 구미종합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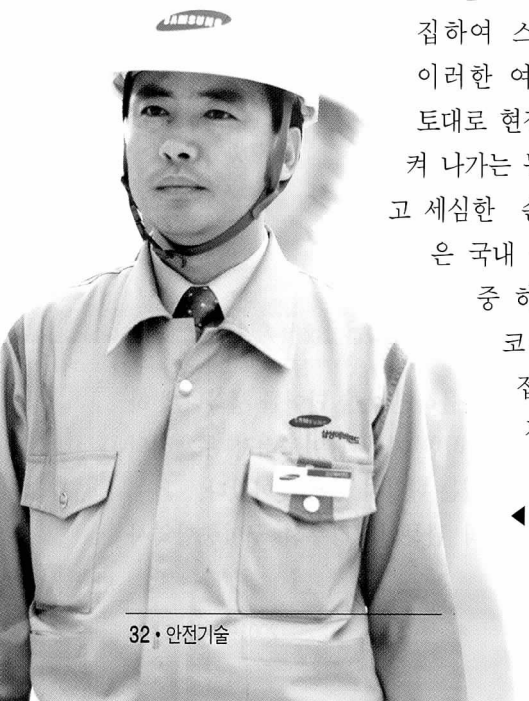
신축"현장 (삼성에버랜드 손두현 소장)이 바로 무재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곳이다.

1999년 12월에 착공한 이 곳은 건축면적 3.800여 평의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열차가 달리는 철로 위에 새로운 역사를 신축하는 현장이다. 삼성에버랜드는 리모델링 전문회사로 신축공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도의 건축기술과 안전이 요구되는 역사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모험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손두현 소장을 비롯해 직원과 현장실태를 둘러보고 그런 생각이 기우였음을 금방 깨닫게 되었다.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무재해 금자탑을 세우는데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손두현 소장은 현장 근로자들도 직원이라고 생각하여 휴게실 설치, 안전교육 철저 등 복지후생에 제일 먼저 배려함으로써, 직원들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 모두에게 애착심을 심어주고 있다.

현장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스크랩하고, 이러한 여러 정보를 토대로 현장에 적용시켜 나가는 등 적극적이고 세심한 손두현 소장은 국내 우수건축물 중 하나인 포스코센타를 직접 쌓아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에버랜드 최초의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 손두현소장

이렇게 현장 안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손소장은 그 동안 국내외 9개 현장에 근무하는 동안 제철설비 PLANT 공사와 지하철, 고층빌딩, 백화점, 병원 등 위험하고 복잡한 현장을 많이 시공했는데, 80년대 초, 중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던 시기에 제철 설비 PLANT 공사 시공을 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이 되고,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건설산업이 이렇게 인명을 경시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손 소장이 더욱 이러한 마음을 굳히게 된 것은 일본의 건설현장을 견학했을 때 그 들의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쏟는 정성을 보고 느낀바가 커 현재 극성스러울 정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떠한 위험 요소도 제거한다

구미역사 현장은 열차가 정상 운행하는 상태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상에서 하는 공사는 모두가 위험한 작업이다. 특히 상·하행 본선을 횡단하는 철골공사는 철도공사에서 소위 말하는 사이차단공사(열차가 통과하지 않는 시간 주간 7분 Cycle, 심야 2시간 정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승객유도라든가, 선상 낙하물 방지대책 수립 등 어려운 작업이 산재되어 있고, 열차 통과시 열차통과를 방해하는 어떠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건설현장에서 느낄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속에 작업을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가장 위험한 작업이었던 기존 승강장 홈지붕 철

거작업은 당초 설계가 브레카로 Con.c를 깨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승객의 안전과 민원방지를 위해 무진동, 무소음 공법인 Con'c cutting공법을 적용하여 휠쇼와 와이어쇼로 Con'c를 절단하여 크레인으로 들어내는 최신 철거공법을 사용해 인근주민과 철도청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고소작업시 잠깐의 실수로 제 3의 재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 곳 현장 특성 때문에 작업 착수전 안전상황실에서 특별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역내의 운전요원과 Hot-line을 개설하여 열차통과 시간 등을 수시로 교신하여 작업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에 혼혈을 기울이고 있다.

2중 3중 안전시설 및 안전활동 강화

건설현장의 재래형 재해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현장에서는 시공계획수립시부터 안전시설물에 대한 도면 검토를 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설비를 공장 제작시부터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모든 건널목에 신호수를 24시간 항시 배치하고,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감지한 센서를 부착해 자동적으로 "건널목 주의" 목소리가 나오도록하는 무인신호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담 안전관리자 밑에 안전 전담반장을 두어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위험요소제거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안전에 관한 불안전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본사 안전팀은 매주 1회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매월 안전기술지도를 통해 단 하나의 불안전요소도 용납하지 않는 철통같은 안전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안전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활동을 하고 있는 이 곳은 여러 가지 자율안전활동을 하고 있었다. T.B.M시 그 날의 안전구호를 현장 근로자들이 돌아가며 선창하게 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감

을 갖게 하고 있으며, 근로자 1인을 선정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1일 안전관리자로 선정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에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반 안전활동을 통해 우수근로자에게는 가족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포상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안전도 유도하고 있었다.

협력업체 자율로 이끌어가는 현장 안전활동

협력업체에는 계약시부터 안전관리자 지정과 안전관리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여 시공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갖게하고, 분기마다 협력업체를 당사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등록여부 및 입찰 참가여부를 평가해 상 · 벌을 주므로써, 협력업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의 안전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 작업시작전 5분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전 5분 안전교육 실시, 작업후 5분 정리정돈을 실시하는 3.5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의식 고취 및 T.B.M 활성화로 위험예지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안전관련 지적 사항을 3회 받으면 현장에서 퇴출되는 삼진 아웃제 운영과 격월 1번씩 각 협력사 대표자로 구성하여 안전 및 품질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심야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저녁에는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배치하여 현장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근로자는 현장에 출입을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관할 현장 중 지난달에는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되기도 한 구미종합역사 신축현장은 2중 3중 안전활동 및 안전시설를 통해 준공 그날까지 무재해의 금자탑이 세워질 것으로 확신한다.

구미역 조감도